



정보보호의 기본, 무엇일까요?

박은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대리 eun@kisia.or.kr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진 공격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보보호의 첫 단추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해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안패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한 대의 PC는 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만큼 그 위험성은 매우 높죠. 정부가 일반 사용자 PC의 보안 업데이트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PC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MS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4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PMS(Patch Management System)는 정보보호의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정보보호 솔루션입니다. MS 윈도우즈 보안패치 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패치 설치 및 백신 업데이트 등을 중앙에서 관리해 PC에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PC를 보호하는 것이 PMS의 존재 이유죠. 소프트웨어는 PMS 및 안티피싱 솔루션 전문 IT 기업으로, PMS '인사이터(In-citer)'와 안티피싱 솔루션 'No Phishing'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003년 외산 제품이 주류였던 PMS 시장에서 인사이터를 출시해 화제를

모았던 소프트웨어는 약 4년만에 540여개 고객사에 인사이트를 보급,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죠.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레드헤링으로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노베이션 센터 2기 회원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PMS라는 단어와 제품을 국내에 안착시킨 소프트웨어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IT 기술 성장의 폭과 깊이는 더하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습니다. **S**